

# KIA '젊은 마운드' 스윙패 막았다



<김윤동>

### KT 2패 후 대체 선발 출격 황인준 기대 이상 활약 하준영·김윤동 이어 던지며 4-2승 연패 탈출

KIA 타이거즈가 살얼음 승부 끝에 연패에서 탈출했다. KIA가 지난 31일 수원 KT 위즈파크에서 열린 KT 위즈와의 시즌 3차전에서 4-2로 이기며, 스윙패를 모면했다. 평균 나이 '25.6세'의 젊은 마운드가 위기의 경기에서 값진 승리를 만들었다. 앞서 에이스 양현종이 6이닝 12피안타(1피홈런) 6실점으로 KT와의 시즌 첫 만남에서 패전 투수가 됐고, 지난 30일 출격 한 제이콥 터너도 5이닝 피안타 3볼넷 6탈삼진 2실점으로 2패째를 기록하는 등 KIA는 스윙 위기에서 3연전의 마지막 날을 준비했다. 원투펀치의 연패 속 부상이라는 변수도 등장했다. 임기영이 지난 30일 요구리 통증으로 엔트리에서 탈소되면서 이날 황인준(28)이 대체 선발로 출격했다. 황인준이 기대 이상의 활약으로 초반 싸움에 힘을 보탤다. 1회를 '3K'로 연 황인준이 2회 1사에서 윤석민에게 첫 안타를 허용했지만 이후 두 타자를 범타로 처리했다. 3회초 KIA가 선취점을 냈다. 1사에서 불넷으로 출루한 한승택이 황윤호의 땅볼로 2루까지 향했고, 폭투에 이은 이명기의 중전안타로 홈을 밟았다. 황인준은 연속 삼진으로 3회를 시작했지만 첫 실점을 기록했다. 2사에서 박경수에게 중전안타를 맞은 황인준이 유한준의 좌측 2루타로 1-1 동점을 허용했다. 4회에는 황재균에게 역전 솔로포도 내줬지만 황인준은 4.1이닝을 5피안타(1피홈런) 7탈삼진 2실점으로 막으며 제 몫을 해냈다. 문경찬(27)이 KIA의 두 번째 투수로 등장했다. 5회 1사 1루에서 나온 문경찬이 대타 김민혁에게 중전안타를 맞으며 1사 1

2루가 됐다. 유한준을 유격수 땅볼로 처리하면서 투 아웃. 강백호를 고의 사구로 내보낸 KIA가 세 번째 투수로 좌완 이준영(27)을 선택했다. 이준영은 2사 만루서 4번 타자 로하스를 2루수 플라이로 처리하면서 급한 불을 끄었다. 상대 3루수 실책을 발판 삼아 3-2 역전에 성공한 6회. 이어진 6회말 수비에서는 1사 2루에서 불펜의 막내 하준영(20)이 출격해 오태근과 이해창을 각각 중견수 플라이로 처리했다. 그리고 7회초 최형우의 적시타가 나오면서 점수는 4-2로 벌어졌다. 하준영이 7회말을 삼자범퇴로 정리하면서 KIA의 승리가 눈앞에 보이는 것 같았다. 하지만 잘 던지던 하준영이 8회 연속 불넷을 허용했고, 마무리 김윤동(26)이 일찍 출격했다. 황재균을 헛스윙 삼진으로 잡은 김윤동이 오태근은 3루수 땅볼로 처리했다. 대타 장성우를 고의 사구로 내보낸 김윤동은 심우준을 우익수 플라이로 잡고 8회를 끝냈다. 김윤동이 9회 선두타자 김민혁을 삼구 삼진으로 처리했지만 승리로 가는 길이 쉽지 않았다. 유한준에게 중전안타를 맞은 김윤동이 강백호를 불넷으로 내보내며 1사 1·2루에 몰렸다. 로하스를 마무리한 김윤동은 풀 카운트 승부 끝에 헛스윙 삼진을 만들어냈고, 대타 배정대와의 승부에서도 풀카운트까지 몰렸지만 역시 헛스윙 삼진으로 승리를 확정했다. 대졸 5년 차 이준영이 프로 첫승을 기록했고, 지난 28일 한화전에서 프로 첫승을 신고했던 하준영은 이날 프로 첫 홀드를 남겼다. 김윤동은 시즌 두 번째 세이브를 올렸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하준영>



광주 FC의 펠리페가 지난 30일 광양전용구장에서 열린 전남 드래곤즈와의 K리그2 4라운드 경기에서 후반 15분 헤더에 성공하고 있다. 광주는 펠리페의 멀티골에 힘입어 2-1 승리를 거뒀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광주 FC, 전남 드래곤즈와 '리턴매치'도 이겼다

### 펠리페 4게임 연속골 득점 선두 5경기 무패...K리그2 1위 수성

광주 FC가 전남 드래곤즈와의 '리턴매치'도 승리로 장식했다. 광주가 지난 30일 광양전용구장에서 열린 전남과의 하나원큐 K리그2 2019 4라운드 원정경기에서 펠리페의 멀티골을 앞세워 2-1 승리를 거뒀다. 지난 27일 같은 장소에서 열린 전남과 FA컵(3R) 원정경기에서도 1-0 승리를 거뒀던 광주는 3일 만에 재개된 맞대결에서도 웃었다. 이날 승리로 광주는 정규리그 4경기에서 3승 1무(승점 10)를 기록하며, 아산 무궁화(3승1패·승점 9)의 추격을 물리치고

K리그2 선두 자리를 수성했다. '해결사' 펠리페는 팀 역사상 첫 4경기 연속골의 주인공이 됐다. 지난 2라운드 아산 무궁화와의 홈경기서 헤트릭을 기록하기도 했던 펠리페는 이날 두 골을 보태며 득점 1위(7골)를 유지했다. 아산 고무열이 5골로 펠리페의 뒤를 쫓고 있다. 전반 20분 펠리페의 득점포가 가동됐다. 광주 여름이 하프라인 부근에서 상대의 백패스를 가로채 역습에 나섰다. 페널티박스 근처까지 질주한 여름이 왼쪽에 있던 펠리페에게 공을 찰라쳤고, 펠리페의 왼발이 잠시 뒤 전남 골망을 흔들었다. 하지만 전남의 기세도 만만치 않았다. 전반 34분 최재현이 동점골을 터트리며 승부를 원점으로 되돌렸고, 후반전에도 매섭

게 광주의 골대를 노렸다. 광주는 후반 12분 새 외국인 공격수 윌리안을 투입하면서 분위기가 반전을 노렸다. 그리고 교체 카드가 적중했다. 후반 15분 코너킥 상황에서 뒤로 흐른 공을 윌리안이 뺏어 크로스를 올렸다. 상대 수비수 맞은 공이 펠리페의 머리 쪽으로 향했고, 펠리페가 헤더로 역전골을 장식했다. 전남이 승부를 되돌리기 위해 후반 29분 한현희와 김민혁을 동시에 투입하며 승부수를 던졌지만 광주가 남은 시간을 잘 버티면서 승리를 확정했다. 컵대회 포함 3월 5경기 무패 행진(4승1무)을 지휘한 광주 박진섭 감독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 시즌도 한 경기 한 경기 힘든 것 같다"면서도 "일단 3월 말 마무리

리한 것 같아서 기분 좋다. 4월 말에 홈 경기, FA컵 등 많은 경기가 있는데 체력 소모도 있을 것 같고, 부상 선수도 있는 것 같은데 잘 정비해서 4월에도 좋은 경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의 4월에는 '공격 다변화'라는 속제가 남았다. 광주는 정규리그 4경기에서 9골을 넣으며 1위 질주를 하고 있지만, 이 중 7골이 펠리페에게 집중됐다. 이에 대해 박 감독은 "윌리안도 투입했고, 이희균과 엄원상도 찬스들이 있었는데 경험들이 적다 보니까 골대 앞에서 노련미가 부족했던 것 같다. 연습을 통해서 보강해야 할 것 같다"며 "제일 좋은 것은 연습이다. 실전과 같은 상황에서의 긴장감과 압박감을 가지고 훈련을 더 해야 할 것 같다. 심리적으로는 스트레스 안 받게 격려도 해 줄 것이다. 좋은 선수들이니까 첫 골이 나오면 두 번째 세 번째 골도 나올 것이다"고 언급했다. /광양·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탬파베이 최지만을 첫 멀티히트

### 류현진 MLB 개막전 승리 투수

미국프로야구 탬파베이 레이스의 최지만(28)이 올 시즌 처음으로 멀티히트를 기록했다. 최지만은 지난 31일 열린 메이저리그 휴스턴 애스트로스와의 홈경기에서 4타수 2안타로 활약했다. 3번 타자 1루수로 선발 출전한 최지만의 첫 안타는 세 번째 타석에서 나왔다. 최지만은 2-1로 앞선 5회말 1사에서 바뀐 투수 윌 해리스를 상대로 좌전 안타를 기록했다. 후속 타선의 불발로 득점을 올리지 못했다. 최지만은 3-1로 앞선 8회말 네 번째 타석에서도 바뀐 투수 크리스 데벤스키의 초구를 공략해 1루를 밟았다. 탬파베이는 휴스턴에 3-1로 승리했다. '추추트레인' 추신수(37·텍사스 레인저스)는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천금같은 적시타를 터뜨리며 자신의 진가를 재확인했다. 추신수는 시카고 컵스와 홈경기에서 1번 지명타자로 선발 출전해 4개 삼진을 연거푸 기록한 뒤 팀 추격을 알리는 2타점 적시타를 날렸다. '개막전 승리투수' 류현진(32·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은 정규리그 두 번째 경기에 대타로 출전했다. 류현진은 지난 30일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와 홈경기에서 4-4로 맞선 연장 12회 말 2사 1·2루 끝내기 찬스에서 타석에 등장했다. 데이브 로버츠 감독은 투수 타석에 전날 선발승을 거두고 쉬고 있던 류현진을 투입했다. 애리조나 우완 맷 앤드리스와 대결한 류현진은 초구를 때려 우측 외야로 뺀 어가는 파울을 날렸다. 이어 몸쪽 커브를 잡아당겼으나 타구는 유격수 앞으로 느리게 굴렀고, 1루에서 잡혔다. 다저스는 연장 13회 결승점을 내줘 4-5로 역전패했다. /연합뉴스

## '334승 메시' 라리가 최다승 타이

### 10시즌 연속 40골 이상도

리오넬 메시(32·FC바르셀로나)가 스페인 프로축구 프리메리가가 개인 통산 최다승 타이 기록을 세웠다. 메시는 지난 31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캄노우에서 열린 2018-2019 프리메리가가 29라운드 에스파냐와 홈경기에서 혼자 두 골을 넣어 바르셀로나의 2-0 승리를 이끌었다. 리그 선두인 바르셀로나의 올 시즌 21승(6무 2패)째다. 아울러 메시가 프리메리가에서 거둔 개인 통산 334번째 승이기도 하다. 바르셀로나 구단은 이날 경기 후 홈페이지에 메시가 골키퍼 이케르 카시야스(FC 포르투)의 프리메리가가 최다승 기록에 타이틀을 이뤘다고 알렸다. 카시야스는 레알 마드리드에서 1999년

부터 2015년까지 16시즌을 활약하면서 프리메리가가 510경기에 출전해 334승(87무 89패)을 수확했다. 2004-2005시즌 바르셀로나에서 프리메리가에 데뷔한 메시는 15시즌, 445경기 만에 334승(72무 39패)을 거둬 카시야스와 어깨를 나란히 했다. 또 메시는 이날 두 골을 보태 올 시즌 리그 득점을 31골(27경기)로 늘렸다.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8골(6경기), 스페인국왕컵(코파 델 레이·4경기) 2골을 포함하면 올 시즌 메시의 총 득점은 41골이나 된다. 이로써 메시는 총 47골을 터뜨린 2009-2010시즌부터 10시즌 연속 40골 이상을 기록했다. 메시는 2011-2012시즌에는 프리메리가에서만 무려 50골을 몰아넣는 등 73골을 폭발하기도 했다. /연합뉴스